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시, 내달부터 1년간... 정원산업도시 추진 로드맵도 과업에 포함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기초를 다진다.

시는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복원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

해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비전과 세부 전략을 설정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식재대상지를 조사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용역이 시작되는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시유지를 대상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현수와 식재 참여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나아가,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가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원산업도시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도 발굴하게 된다.

시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원도시의 모습을 종합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입찰 공고와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제출,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왔다. 용역은 오는 5월 초 용역업체와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전주시 천만그루 나무심기단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첫 시작이 중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용역을 진행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5일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교정을 지나고 있다.

‘클린 전주’ 시민 참여로

시, 국제영화제 등 대비 민·관 합동 일제대청소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대청소가 실시됐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전주시 산하 공무원과 환경관리원, 자생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5월 2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대비, 깨끗하고 청결한 손님맞이를 위한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시민들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장 이자 개막식이 열리는 전주 돌 주변

과 영화의 거리 등 행사장 주변을 정비했다.

또한 영화제 기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을 중점 정비하고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 주변과 인몰밀집지역, 이면도로 등에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0일간을 전주국제영화제 대비 사전 대청소 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관리원 및 공공근로 등 가용 청소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순

넘맞이 도심 환경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보유차량 12대와 민간위탁 차량 6대 등 총 18대의 진공 노면 청소차량을 적극 활용해 주요 진출입도로와 관광지 주변도로 등 노상 모래먼지를 제거했다.

시는 향후 영화제 기간 중에는 영화의 거리와 객사길 등 주요 행사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상시 근무자를 배치해 행사장 주변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민선7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께서도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일괄 후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등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 공모 참여

물왕벌 커뮤니티 가든 조성 등

주민들이 모여 나후면 전주 원도심 마을을 스스로 바꾸기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올해 주민주도로 구상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말 전국 50개 정도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각각 1억원~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중앙동 주민회합동체 △물왕벌 마을공동체 △진북동 마을재생사업추진단의 3개 단체와 함께 공모에 신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마을공동체 재생 △물왕벌 행복한 커뮤니티 가든 만들기 △마을동화를 활용한 책마을 재생사업 등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지원과 주민공동체 확대 및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제가장기요양기관협 청림식

전주시가 어르신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유치한 가운데, 전주·완주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이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제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최근 전주 노블레스웨딩홀 대연홀에서 전주·완주군 장기요양기관 기관장과 종사자, 관련 내·외빈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에 기여해온 전주·완주군 장기요양기관 기관장 11명에게 국회의원상과 도의장상, 시의장상 등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송효철 기자

‘생태체험으로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

애완조류 전시·대형 육지거북·반딧불이 체험 등 전주자연생태관, 내달 4-6일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주자연생태관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특별 전시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생태관은 애완조류 전시와 대형 육지거북 체험관을 운영하고 어린이를 위한 전통놀이인 고무와 쌍륙,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 가족 영화상영 등을 마련했다.

먼저, 생태관 1층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애완조류와 대형육지거북을 전시해 관람객들이 먹이주기를 통해 다양한 생물의 습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수조에 손을 넣으면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도 체험을 할 수 있다.

2층에서는 타란툴라거미 등 다양한 전시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포토존에서는 전주천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겨갈 수 있다. 반딧불이 정원에서는 풍무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동안 ▲에픽

숲속의 전설 ▲마이펫의 이중생활 ▲코렐라인 비밀의 문 가족영화 3편을 매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상영된다.

어린이날 당일 1만2세 이하 어린이는 자연생태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전주자연생태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 외에도 매주 토요일 열리는 토요일생태교실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날 연휴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홈페이지(ecomuseum.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전 현직 교수 2명 불기소

검찰, 특정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 무혐의 처분

전북대 총장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전 현직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북대 정모(63)교수와 김모(73)전 교수 등 2명을 불기소기소 했다.

당시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당시 현직이던 이남호 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리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김 경감을 만난 직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의 비리 내사설로 불거져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이후 총장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의혹이 쟁점화됐으며, 최종 결정에서 이 총장은 낙마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이 교수가 공모해 이 총장을 낙선시키려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 제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관 선거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 경감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수사팀에 오른 당시 총장 후보자 등 3명의 교수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 등은 휴대전화 분실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피의자들은 선거 전·후 휴대전화 기록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보고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이 의심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교수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이번 수사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교수들의 개입으로 총장 직선제가 훼손됐으며 선거개입 의혹을 고발한 장준갑 전북대 교수 등 40명은 29일 오전 11시 전북대 인문대 2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경찰 “전주 드레스룸 20대 사망 ‘타살 혐의 없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드레스룸에서 20대가 목매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유족이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인의 남편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해 수사했으나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주 드레스룸 사망 사건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경 완산구 한 아파트 드레스룸에서 A모(당시 27)씨가 목매 쓰러진 것을 가족과 이웃, 경찰 등이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해 사건 발생 26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의 몸에 멍이 있었고 드레스룸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평소 A씨와 다툼이 있었던 남편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을 제출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완산경찰서는 형사과정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최근까지 증거를 수집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강석훈 기자

도내 A 대학교수 성추행 혐의... 경찰, 수사 나서

전북도내 한 대학교수가 같은 대학 시간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 A씨가 같은 대학 시간강사 B씨에게 성추행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B씨는 해버리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교수를 불러 정확한 사안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의회-국제라이온스협회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 펼쳐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김재 실내체육관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와 함께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양 기관이 사전협의해 국제라이온스협회 연차대회 개최에 맞춰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홍보하자는 데 뜻을 모아 합동으로 진행했다.

서명운동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대면 서명부 작성으로 진행했으며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협회 회원들 모두 어깨띠를 두르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국제라이온스 협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더 많은 시민들이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화학사고 대응 교육

전북경찰이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경찰청은 새만금지방환경정화 화학재난방지 센터 소속 전문가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재난유형별 교육계획 일환으로 전문가를 통해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복구 지원 등 경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교육 진행은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 상설부대 위기관리 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사례분석 및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통제 등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로 이뤄졌다.

화학사고는 도로상 위험물질 운반이나 화학물질 취급 공장 등에서 유출·폭발로 발생한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사고는 총 14건으로 매년 5건 정도 발생했으며, 이 중 70% 이상은 제조공장에서 일어났다.

일선 경찰서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박모 경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화학물질들의 특성 이해로 사고 직면시 전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찰의 재난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사전거 훔친 70대 검거

식당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친 7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57분경 익산시내 모 식당 앞 인도에 세워진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